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42010005#ENT>

오피니언 조현철의 나락 한 알／オピニオン チョ・ヒョンチョルの 稲の一粒

새해, 누군가에 선물이 되자／新年、誰かのための贈り物になろう

입력 (入力) 2026.01.04 20:10

조현철 신부·서강대 명예교수／チョ・ホンチョル（曹賢哲？）神父・ソウル西江大学名誉教授



지난해는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 되는 해였다.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중정)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재일동포 유학생 13명을 포함한 21명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중정이 조작한 사건이었다.

昨年は、いわゆる「在日同胞留学生スパイ」事件が発生してから50年目の年でした。1975年11月22日、中央情報部（中情）は国内で活動していた在日同胞留学生13人を含む21人のスパイを逮捕したと発表しました。すべて中情が捏造した事件でした。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남산의 중정 지하실로 끌려가 살인적인 고문을 받고 간첩이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던 엄혹한 유신독재 시절, 간첩의 ‘위력’은 대단했다. 한국 사회는 조국을 알려고 찾아왔다 간첩으로 몰린 무고한 청년들을 외면했다.

在日同胞の留学生たちは、理由も分からぬまま南山の中央情報部地下室に連れて行かれ、殺人的な拷問を受けてスパイにされた。反共イデオロギーが猛威を振るっていた厳しい維新独裁の時代、スパイの『威力』は非常に大きかった。韓国社会は、祖国を知ろうと訪れた無実の青年たちをスパイに仕立て上げたことを無視した。

모든 선행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すべての善行は心から始まる

2010년 이후 재심 절차를 밟은 고문 피해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세월은 되돌릴 수 없어,

당시 청년이던 이들은 이제 모두 노인이 되었다. 지난해 11 월 사건 50 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대화 한마당’이 향린교회와 국회에서 열렸다. 반세기가 지나도 고문 이야기를 듣는 건 쉽지 않았다. 당시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모질고 긴 감옥살이에 들어갔다. 한국 사회의 외면으로 고립무원이 된 이들에게 일본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왔다. 이들이 살던 곳의 일본 사람들이 ‘구원회’를 결성해 교도소로 엽서를 보내고 한국까지 면회를 오는 등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10 年以降、再審手続きを受けた拷問被害者は全員無罪判決を受けた。しかし、時は戻せず、当時青年だった彼らは今や皆高齢者となった。昨年 11 月、事件 50 周年を迎えて『国家暴力被害者と共にする対話の場』がヒャンリン教会と国会で開かれた。半世紀が過ぎても、拷問の話を聞くことは容易ではなかった。当時の在日同胞の留学生たちは、拷問で心身ともにボロボロになったまま、過酷で長期の刑務所生活に入った。韓国社会の無関心により孤立していた彼らに、日本から救いの手が差し伸べられた。彼らが住んでいた地域の日本人たちは『救援会』を結成し、刑務所に絵はがきを送ったり、韓国まで面会に行ったりと、積極的に行動を起こした。

구원회 이야기를 듣고 성서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떠올랐다. 강도를 당한 한 유대인이 초주검이 되어 길에 쓰러져 있다. 동족 두 사람이 차례로 다가왔지만 모두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한국과 일본처럼 유다와 사마리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멘 후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다.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며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며 떠났다.

救援会の物語を聞くと、聖書の「善きサマリア人」の物語を思い出しました。強盗に遭ったユダヤ人が道に横たわっている。同族の二人が次々と近づいてきたが、どちらも避けて通り過ぎた。しかし、サマリア人が近づき—ユダヤ人とサマリア人は韓国や日本のように仲が良くなかったのです—彼は傷に油とワインをかけ、包帯を巻いて、ラバに乗せて宿屋に連れて行き、世話をしました。翌日、彼の面倒を見てやってほしいとお金を与え、あとで清算すると言って立ち去った。

요컨대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그가 다친 사람과 하룻밤을 함께 보낸 걸 높이 샀다. 그는 낯선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가장 아끼는 ‘시간’을 내준 것이다. 시간은 삶의 기반이다.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준 그는 어떤 대가나 공치사도 바라지 않고 떠나갔다. 선물은 무상이다. 자기 삶을 거쳐 내준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선물이었다.

要するに、そのサマリア人はできることをすべて行ったのです。フランシスコ教皇は回勅『すべての兄弟たちへ』で、彼が傷ついた人と一晩を共に過ごしたことを高く評価しました。彼は見知らぬ人に、私たちが今日最も大切にしている『時間』を差し出したのです。時間は人生の基盤です。自分の人生の一部を差し出した彼は、見返りやお世辞を望むことなく去りました。贈り物は無償のものです。自分の命を惜しみなく差し出したサマリア人は、死にかけている人を救う贈り物となったのです。

고베에서 온 한 구원회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전에 구원회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직접 얘기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서른 번도 넘게 왔다고 했다. 한국은 어디 어디 가봤느냐고 물었더니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을 끊었다. 알고 보니, 모두 교도소가 있는 곳뿐이었다. 한국에 오면 교도소로 면회만 갔다 바로 일본에 돌아갔다. 친척이 아니면 면회가 되질 않아 약혼자로 행세했다.

神戸から来たある救援会の女性と話をした。以前に救援会の話は何度か聞いたことがあったが、直接話を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った。彼女は韓国には30回以上も来たと言った。韓国でどこに行ったことがあるかと聞くと、ソウル、大田、大邱、光州などを挙げた。よく聞いてみると、すべて刑務所がある場所だけだった。韓国に来ると刑務所に面会に行き、すぐに日本に戻った。親戚でなければ面会できないので、婚約者のふりをしていた。

사람 사는 세상, 선물의 순환으로

人が生きる世界、贈り物の循環で

드디어 자기가 면회를 해왔던 사람이 석방된 후 그녀가 누군가에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구원회 활동의 목적은 그의 석방이었다. 이제 그가 석방됐으니 더는 바랄 게 없다. 나는 목적을 이뤘다.” 완벽한 무상의 선물은 감동을 넘어 충격이었다. 구원회는 절망의 높에 빠진 이들을 건져낸 희망의 선물이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ついに自分が面会に行った人が釈放された後、彼女が誰かに言った言葉を聞いた。「救援会の活動の目的は彼の釈放だった。彼が釈放された今、もう望むことはない。私は目的を達成した。」完璧な無償の贈り物は、感動を超えて衝撃だった。救援会は絶望の淵に落ちた人々を救い出す希望の贈り物だった。まさに善きサマリア人だった。

고통이 끊이질 않는 이 세상에는 사실 ‘고통을 떠맡는 사람’과 ‘멀찍이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매일 ‘착한 사마리아인’과 ‘무심한 행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평범한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성서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하룻밤까지 함께한 그의 모든 선행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됐다.

苦しみが絶えないこの世界には、実は「苦しみを引き受ける人」と「遠くを通り過ぎる人」しかいない。私たちは毎日「善良なサマリア人」と「無関心な通行人」のどちらか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普通の私が善良なサマリア人になれるだろうか？」聖書を見ると、サマリア人は道に倒れている人を見て哀れな気持ちになった。一晩を共にした彼のあらゆる善行は、この心から始まったのである。

그리스말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가엾은 마음’은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왔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보고 나도 아픔을 느끼는 ‘애끓는 마음’이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은 고통의 공감에서 시작한다.

ギリシャ語で『スプランクニゾマイ』と言う『哀れみの心』は、腸を意味する『スプランクノン』に由来します。単なる同情心ではなく、相手の痛みを見て自分も痛みを感じる『胸が痛む心』です。善いサマリア人になることは、苦しみへの共感から始まります。

공감은 ‘스스로 남의 신을 신어보려는 마음’, 기꺼이 남의 처지에 서보려는 의지와 상상력이다.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동물이 공감 능력을 타고난다는 걸 보여주었다. 사람은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보다 남의 처지를 살피고 공감하는 ‘호모 엠파티쿠스’에 가깝다. 우리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한 것은 자기 이익과 경쟁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공감 능력을 억누르는 탓이다. ‘나’를 벗어나 주위를 살피면 공감 능력이 회복되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쓰러진 사람’이 보이게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짚어간다. 선물은 전염성이 강해 한 곳에 전해진 선물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선물을 낳는다. 선물의 순환으로 세상이 따뜻해지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共感とは『自ら他人の靴を履いてみようとする心』、喜んで他人の立場に立とうとする意思と想像力である。靈長類学者フランス・ド・ヴァールは、動物が共感能力を生まれつき持っていることを示した。人間は主流経済学が想定する利己的で合理的な「ホモ・エコノミクス」よりも、他人の立場を思いやり共感する「ホモ・エンパティクス」に近い。私たちの社会が荒れて冷たくなっているのは、自分の利益と競争を絶対視する資本主義が私たちの共感能力を抑え込むせいである。「私」を抜け出して周囲を見渡せば、共感能力は回復し、以前は見えなかつた「倒れている人」が見えるようになる。自分が誰かにとっての贈り物になり得ることに気づき、善きサマリア人のように振る舞う。贈り物は感染力が強く、一か所で受け取った贈り物は別の場所への贈り物を生む。贈り物の循環によって世界は温かくなり、人が生きやすい世界が作られる。

새해、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新年、私たちみんなが誰かにとっての贈り物になろうという気持ちで一年を始めたらどうだろう。

(翻訳：「papago 翻訳」を少し訂正しました。2026年1月14日 飛田雄一)